



#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원 만 희



## 1.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

### 가. 왜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인가?

※ 용어의 문제: “critical”--중요한, 감식력 있는, 엄밀한, 결정적인, 중요국면의, 임계의

cf) 임계량(critical mass)

: 바람직한 결과를 효과적으로 얻기 위해 충분한 양

cf) critical thin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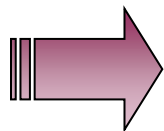
: 올바른 믿음 혹은 최선의 실천을 효과적으로 얻기 위해 충분한 사고

# 1) 비판적 사고의 형식적 특징

가) 비판적 사고는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다.

스스로 무슨 사고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의식하면서 사고하는 것,  
즉 ‘사고에 대한 사고(thinking about thinking)’

⇒ 어떤 사고를 할 때 무엇을 사고하는지, 즉 어떤 문제에 대해 사고하고 있으며, 사고의 핵심 아이디어(관념)는 무엇이고, 사고의 결론은 무엇인지, 이 결론은 무엇을 근거로 하였는지, 또 그 결론은 무엇을 함축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사고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지, 그런 문제를 생각하게 된 배경 혹은 맥락이 무엇인지 등등을 반추하며 사고하는 것이다.



메타인지적(meta-cognitive)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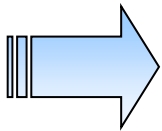
나) 비판적 사고는 목적을 가진 적극적 사고다.

왜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걸까?

그것은 사고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 제대로 사고한다는 것

= 거짓을 식별하고 옳은 것만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최선의 행위를 결정해 내는 것.



문제해결적(Problem-solving) 사고



다) 비판적 사고는 추리적 사고로 이루어진다.

비판적 사고는 단선적인, 분절적 사고가 아니라 연속적이며 이행적인 사고, 즉 추리적 사고로 이루어진다.

⇒ 주어진 믿음이 과연 적절한 근거들을 지니는지, 혹은 주어진 정보들로부터 올바른 도출해낼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인지 생각한다.

("왜--", "--때문에")



## 2) 비판적 사고의 내용적 특징

비판적 사고의 내용은

가) **심층적**이다(깊이를 가진다).

나) **다각적**이다(폭넓다).

다) **영역전이적**이다(활용도가 높다).

⇒ “상황에 맞도록 변형, 결합, 분석, 종합하여 활용하기 용이한 상황 적응적 지식이다.”

cf) 수렴적 창의성



### 3) 의사소통능력의 기반이며 목적으로서 비판적 사고

글을 읽는다는 것은 글 속에 표현되어 있는 저자의 생각을 생각하는 일이며, 글을 쓴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떠올리며 이를 글로 표현하는 일이다.

⇒ 비판적 사고가 글을 읽고 쓰는 학문적 의사소통을 위해 필수적인 정신적 소양임을 증명해 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법은?

⇒ 그것은 다름아닌 ‘글을 읽고, 쓰는 과정’을 통해서이다. 글을 읽어 보고, 써보고 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이 배양되는 것이며, 이렇게 배양된 비판적 사고력은 다시 보다 높은 수준의 글읽기와 글쓰기로 귀결된다.

※ 비판적 글읽기(critical reading)와 비판적 글쓰기(critical writing)  
→ 비판적 사고를 통한 독해와 작문

## 4) 비판적 사고의 9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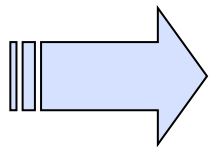
비판적 사고가 고려해야 할 9가지 요소를 정리해 보도록 하자.

비판적 사고의 9요소		
문제	목적	관점
결론	개념	함축
근거(전제)	정보	맥락



## (1) 현안 문제(question at issue)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려고 할 때마다, 거기에는 적어도 하나의 현안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글을 읽고 쓰는 일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현안 문제를 정식화하는 것이다.



질문의 형태로!

## (2) 결론(conclusion)

추론은 전제로부터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추론에서의 결론은 주장의 역할을 하며, 전제(premise)는 근거 역할을 한다.



### (3) 가정 (assumption)

모든 사고는 어디에선가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고 어떤 것을 당연하게 놓을 수밖에 없다.

→ 기본가정

### (4) 목적(purpose), 목표(goal)

비판적으로 사고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또는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 어떤 목표를 향해 사고한다.



## (5) 개념(concept) : 사고의 개념적 차원

모든 비판적 사고에는 어떤 개념(concept) 또는 관념(idea)이 사용된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단어나 개념은 명확한 의미로 사용해야 한다.

## (6) 정보(information) : 사고의 경험적 차원

사고가 기반하고 있는 경험, 자료, 증거, 관찰이 잘못 되었을 때, 그것은 문제 발생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필자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제공된 자료들이 분명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것인지에 주목하여야 한다.



## (7) 관점(point of view),

어떤 글을 읽을 때, 필자가 과연 어떤 관점에서 있는 지 아니면 다른 관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등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어떤 글의 필자이든 그 자신은 어떤 관점이나 준거틀 안에 있다. 물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관점이나 준거틀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 글은 없다. 따라서 관점을 파악하는 일은 글의 방향이나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하다.



## (8) 함축(implication)

어떤 주장이 함축하는 귀결은 우리가 살펴 보려는 말이나 글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어떤 주장을 다시 전제로 삼아, 그에 관련된 상황과 다른 배경 지식들을 고려하면 어떤 내용이 귀결되는가? 어떤 주장 속에 함축된 내용을 우리가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할 것이다.



## (9) 맥락(context), 배경(background)

어떤 글이든 항상 어떤 맥락이나 배경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필자가 글을 쓰게 된 사회적 역사적 정황도 맥락의 일부이며, 필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독자층도 맥락의 일부가 된다. 따라서 글의 내용에 대해 잘 따져 본다는 것은 그것이 발생한 맥락이나 글의 배경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 5) 비판적 사고의 9기준

비판적 사고가 고려해야 할 9가지 기준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

비판적 사고의 9요소		
분명함	정확성	명료성
적절성	중요성	논리성
폭넓음	충분함	깊이



## (1) 분명함(clarity)

분명함은 9가지 기준들 중에서 가장 본원적인 기준으로 애매성(ambiguity)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어떤 진술이 무엇을 뜻하는지 너무 막연하여 이해하기 어렵거나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Ex 1) “한국의 교육제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 “학생들에게는 직업적 업무와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할 텐데, 학생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교육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Ex 2) “철수는 나의 숭배자이다”, “복지 제도는 썩어가고 있다” 와 같은 진술들도 분명하지 못한 예들이 될 수 있다.



## (2) 정확성(accuracy)

정확하다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있는 그대로 실제에 맞게 나타낸다는 것이다. 분명하기는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진술의 예는 다음과 같다.

EX) “개들은 대부분 20년 넘게 산다.”



### (3) 명료성(precision)

명료성은 모호성(vagueness)의 반대 개념으로, 명료하다는 것은 어떤 진술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하고 정확하기는 하지만 명료하지 않은 진술의 예는 다음과 같다.

Ex 1) “철구는 라체중이다.”

Ex 2) 우리는 종종 친구와 헤어질 때, “곧 또 만나자” 라고 말한다. 이 말은, 불명료한 진술임에 틀림없으나, 불명료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적절히 그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



## (4) 적절성(relevance)

진술이 적절하다는 것은 그 진술이 현안 문제 거리와 잘 관련되어 있고 잘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적절하게 사고하는 것은 논점이 이탈되지 않고 제 궤도에 머무르는 것을 말한다.

## (5) 중요성(importance, significance)

우리가 어떤 쟁점과 관련하여 사고할 때, 우리는 사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에 집중하고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고려하려고 한다. 여러 개념들이 문제에 적절하다고 해서 그 개념들이 모두 똑같은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사고하는데 있어 실패하기도 한다.



## (6) 논리성(logicalness)

우리가 비판적으로 사고할 때, 우리는 다양한 사고들을 어떤 질서에 맞게 정리한다. 논리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결합된 사고들이 상호 지지하고 있으며 결합을 통해 유의미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 (7) 폭넓음(breadth, 多角性)

우리가 적절한 모든 관점에서 문제를 고찰할 때, 우리는 넓게 (다각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대안적인 견해를 생각해보고, 반대 입장에서 서보는 것이 넓게 사고하는 것이다.

## (8) 충분함(sufficiency)

우리가 어떤 쟁점과 관련하여 사고할 때, 쟁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들을 목적과 요구에 적절하도록 철저히 고려하였는가?



## (9) 깊이(depth, 深度性)

깊이(심도 있게) 사고한다는 것은 쟁점이나 문제거리를 피상적으로 다루지 않고 더 깊숙이 들어가 그 안에 내재된 복잡성을 파악해내고 지적으로 책임 있는 신중한 방식으로 그 복잡성을 다룬다는 것을 말한다.

Ex1)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청소년들의 흡연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를 물었을 때, 여러분이 그저 ” 담배를 피워서는 절대 안 된다고 청소년들에게 주지 시켜야지요 “

→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슬로건은 분명하고 정확하고 명료하고 적절하다. 하지만, 그것은 복잡한 문제를 피상적으로만 다루기 때문에 깊이를 결여한 것이다. 왜냐하면 청소년 흡연 문제는 사회적, 교육적, 의학적 측면, 예컨대 입시로 인한 청소년 스트레스 해소문제 및 흡연의 중독성의 문제 등등이 고려됨으로써 깊이 있게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비판적 읽기와 쓰기

학 부 대 학  
원만희 교수

# 비판적 읽기와 쓰기: 비판적 사고를 통한 텍스트 독해와 작문

**비판적 읽기:** 주어진 텍스트로부터 비판적 사고의 요소들을 파악하는 과정

- \* 비판적 사고의 기본 요소 : 현안 문제, 키워드, 주장, 근거
- \* 비판적 사고의 부가 요소 : 기본 가정, 함축, 배경, 관점

**비판적 쓰기(1):** 주어진 텍스트를 비판적 사고의 기준에 입각해 비평하는 과정

- \* 비판적 사고의 기준(속성) : 명확성, 정보의 정확성, 유관성, 타당성, 올바름, 사고의 폭과 깊이

**비판적 쓰기(2):** 현안 문제에 대해 주어진 텍스트와는 다른 대안적 견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

## 이상의 과정을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 하자.

당신이 해변을 걷다가 모래 위에 떨어져 있는 시계를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자. 그것을 들여다봄으로써 당신은 그 시계가 정교하고 복잡한 기계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정교한 사물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파도가 모래를 때림으로써 시계가 우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그것은 원숭이가 타자기 위를 아무렇게 뛰어 다님으로써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씌어졌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도의 설득력을 가질 뿐이다. 시계의 정교함은 그것이 지성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시계를 만든 지성적인 존재자가 있었기 때문에 시계는 존재한다.

생명의 세계를 한번 둘러보자. 생명의 세계에는 엄청나게 정교하고 환경에 잘 적응된 생명체들로 꽉 차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발견할 것이다. 사실 생명체들은 시계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그리고 시계가 시간을 측정하는 일에 알맞게 되어 있듯이, 생명체들도 생존하고 복제하는 일에 매우 적합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생명체들이 그렇게 놀라운 정도로 정교하고 잘 적응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파도가 모래를 때리는 것과 같은 제멋대로의 과정에 의해 우연히 난초들, 악어들,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엄청난 지성을 가진 창조자가 생명체라 불리는 대단히 정교하고 잘 적응된 기계들을 만들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최상의 설명일 것이다. 그러한 존재자를 우리는 “신”이라 부른다.

-윌리엄 페일리 『자연신학』 중에서-

윗글이 특정 교과서의 텍스트라고 가정할 때, 이에 대한 비판적 읽기와 쓰기는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 진다:

# 1. 비판적 읽기

이 글에서 비판적 사고의 기본 요소와 부가 요소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현안문제	생명체(생명의 세계)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핵심어와 그 의미	지성: 정교하고 복잡한 기계의 창조자 만듦: 지성의 목적 실현 행위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계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교하고 복잡한 기계다.</li> <li>② 시계는 그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지성적 존재에 의해 만들어졌음에 틀림없다. (①로부터)</li> <li>③ 생명체(생명의 세계)는 생존과 복제를 위해 만들어진, 시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기계다.</li> <li>④ 엄청난 지성을 가진 창조자만이 이러한 기계를 만들 수 있다. (②+ ③으로부터)</li> <li>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자를 ‘신’이라고 부른다.</li> </ul>
주장	그러므로 신이 생명체(혹은 생명의 세계)를 만들었다.
기본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성적 존재만이 어떤 목적을 갖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정교하고 복잡한 사물을 만들 수 있다.</li> <li>② 생명체도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사물과 유사하다.</li> </ul>
배경	신의 창조 행위를 이성적으로 설득하기 위함. 즉 창조론을 지성적으로 설득하기 위함.
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생명체(생명의 세계)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다.</li> <li>② 창조주 신이 존재한다.</li> </ul>
관점	목적론 혹은 창조론적 관점

## 2. 비판적 쓰기(1)

‘비판적 사고의 기준들’ 가운데 이 텍스트와 관련된 것들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은 비평 적 물음들이 성립하게 된다:

명확성	핵심 개념 ‘지성’와 ‘만듦’의 의미는 명확한가?
타당성	제시된 근거 5개로부터 “신이 생명체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대로 도출되는가?
올바름	근거 ①, ②, ③, ④, ⑤ 중 의심스런 것은 없는가?
사고의 폭과 깊이	-생명체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지성’의 도입이 불가피한가? -모든 대상이 반드시 존재하는 목적을 지녀야 하는가?

이 물음들에 답변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판적 쓰기’가 이루어 질 수 있다:

### 명확성의 기준에서

위 글의 키워드 ‘지성’과 ‘만듦’은 엄밀히 말하면 명확성을 결여한 용어이다. 저자는 ‘지성’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은 채, ‘사물의 존재 목적을 의식하고 이를 실현하는 제작 능력’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암묵적 정의는 ‘지성’에 대한 상식적 이해와 크게 다르다. 왜냐하면 그 정의는 ‘지성’에 ‘목적의 의식하는’ 지적 능력 이외에도 목적을 실현하는 ‘제작(만듦) 능력’을 더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듦’도 불명확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글에서 ‘만듦’은 ‘창조’와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행위로, 재료를 가지고 특정한 사물을 만드는 ‘제작’과는 차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 올바름의 기준에서

근거 ①, ②, ③, ⑤를 문제 삼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위 요약문의 핵심근거 ④는 논리적으로 커다란 약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근거 ④는 독립적인 논거가 아니다. 요약문에도 표시되었듯이 그것은 근거 ②, ③으로부터 추리된 것이다(논리학에서 이러한 추리 유형을 ‘유비’ 혹은 ‘유추’라고 부른다). 문제는 근거 ④가 근거 ②, ③으로부터 적절히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시계’와 ‘생명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저자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다.

### 사고의 폭과 깊이의 기준에서

앞에서의 논리적 문제점 외에도 이 글은 논의의 폭에 있어서도 약점을 갖고 있다. 저자는 현안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모든 존재 혹은 대상이 각기 존재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고, 또 이러한 목적을 의식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존재가 있다’고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듯하다. ‘지성’이나 ‘창조’와 같은 용어를 도입한 것만 보더라도 그 점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다.

### 3. 비판적 쓰기(2)

앞 단계의 글쓰기 내용을 정리하면, ‘신이 생명체를 창조하였다’는 페일리의 주장은 적어도 ‘시계와의 유비’ 그리고 ‘지성’ ‘창조’ 등의 용어 도입을 통해서는 제대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명체는 어떻게 생겨났는가’라는 원래의 문제에 대한 다른 견해 혹은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아래는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의 『눈먼 시계공』에서 발췌한 글로, 페일리의 견해에 대한 간략한 비판과 함께 대안적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비평적 에세이’의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단, [ ] 안의 부분은 필자가 덧붙인 것이다).

논평	열성적이고 성실한 페일리의 주장은 당대 최고 수준의 생물학 지식에 의거하였지만 잘못된 것이었다. 그것도 완전히 틀린 주장이었다. 시계와 생명체를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는 잘못된 유비(analogy)의 오류이다. 왜냐하면 시계와 생명체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는 대상들이며, 따라서 둘 사이에 유비가 성립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대안 제시	비록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그 과정을 전개하였지만 모든 자연 현상을 창조한 유일한 시계공 ‘맹목적인 물리학적 힘’이다. 실제의 시계공은 앞을 내다볼 수 있다. 그는 마음의 눈으로 미래의 결과를 내다보면서, 톱니바퀴와 용수철을 설계하고 그것들의 조립 방법을 생각한다. 다윈이 발견했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맹목적이고 무의식적이며 자동적인 과정인 자연선택은 확실히 어떤 용도를 위해 만들어진 모든 생명체의 형태와 그들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며, 거기에는 미리 계획한 의도 따위는 들어 있지 않다. 그것은 마음도, 마음의 눈도 갖고 있지 않으며 통찰력도 없고 전혀 앞을 보지 못한다. 만약 그것이 자연의 시계공 노릇을 한다면, 그것은 ‘눈먼’ 시계공이다